

5·18 40주년 기념 행사 청년층 참여 초점

23개 행사 방향·일정 확정
아시아인권포럼 등 일부 행사
코로나 지속엔 개최 불투명
기념식 개최 장소도 결정 못해



‘제40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40주년 행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기념행사는 80년 5월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또 40년 전 시민들의 결기대회 형식을 빌려 현 시대 상황을 진단하는 국민대회도 열린다. 하지만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부 행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취소될 수도 있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국립 5·18민주묘지가 아닌, 전남도청 앞에서 치를 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제 40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1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5·18기념행사의 주요 방향과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밝혔다. 행사위는 광주안에 갇혀 있는 5·18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동학혁명부터 촛불혁명에 이르는 장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국민대회는 ‘대동의 오월’이라는 부제로 5월 16일 금남로에서 열린다. 지난 1980년 당시 결기대회의 형식과 내용을 재현하면서 2020년 시대 상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청년들도 행사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행사위는 16일부터 이틀 간 5·18민주광장 등에서 청년세대가 5월의 콘텐트화를 시도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서 오월을 공감할 수 있는 ‘청년마당’ 행사를 기획중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캠퍼스 운영과 주먹밥 나누기, 문화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전야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5월 희생자들의 인형을 제작, 시가지를 둘러보는 ‘오월시민행진’도 진행된다. 이외에 20일 민주기사의 날, 27일 ‘부활 문화제’도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잡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애초 기획했던 행사도 축소될 처지에 놓이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행사위 출범식도 지난달 치르기로 했다가 오는 24일로 미뤄졌고 5·18을 겪었던 아시아지역 인물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아시아인권포럼도 해당 국가들의 출입국 제한 등이 맞물리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인권상 수상자(10명) 초청계획도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행사위는 또 40주년 5·18 정부기념식을 국립 5·18민주묘지나 옛 전남도청에서 치르는 것과 관련, 오월 단체와 각계 의견을 수렴, 조만간 보존처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달뜨기	03:01
해질	18:43	달집	12:59

완연한 봄날씨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5/21	보성	맑음	1/17
목포	맑음	4/17	순천	맑음	5/19
여수	맑음	6/16	영광	맑음	2/18
나주	맑음	3/20	진도	맑음	3/16
완도	맑음	5/17	전주	맑음	3/19
구례	맑음	3/20	군산	맑음	3/17
강진	맑음	3/19	남원	맑음	1/19
해남	맑음	2/18	흑산도	맑음	6/16
장성	맑음	3/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남동~남	0.5~1.0
면바다(북)	남동~남	0.5~1.5
면바다(남)	남동~남	0.5~1.5
남해서부	남서~서	0.5~1.0
면바다(서)	남서~서	1.0~2.0
면바다(동)	남서~서	0.5~1.5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42	09:33
	15:40	21:38
여수	11:56	05:24
	23:24	17:19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	☀	☀	☁	☀	☀	☁
10/13	3/17	6/21	8/19	5/19	5/20	8/17



아구는 못해도...캠스필드 승강장 봄맞이 대청소 17일 광주시 북구 임동 기아 챔피언스필드 버스승강장에서 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버스 유리의 묵은 때를 닦은 뒤 소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조선대, 삼성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가 최근 삼성꿈장학재단의 2020년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 올해도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과학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신 지구과학교육과 교수가 총괄 운영하는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은 대학이 지역·사회경제적으로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과학 및 ICT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말에 시작되며 광주를 포함해 나주, 담양, 화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연계 과학수업 ▲드론 및 아두이노를 통한 ICT 교육 ▲글로벌 이슈를 통한 민주시민 소양 양성 ▲교육기부 과학관 도슨트 활동 ▲진로체험을 위한 질답사 ▲나의 미래를 위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과학 및 ICT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재난교육과 관련된 시민과학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사상 초유 '4월 개학' 맞은 광주·전남교육청 후속대책 추진 온라인 학습·청소년 시설 방역 등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광주·전남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학생 생활지도·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추진한다. 광주교육청은 4월 6일 개학에 맞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개학준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학교시설 소독, 방역물품 확보 및 비치, 수업환경 안전 확보, 교직원·학생·학부모 위생수칙 교육, 발열검사 안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확인·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를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EBS 온라인 학습방과 e-학습터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통해 정규수업에 준하는 관리형 온라인 학습 시스템 운영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한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병행 지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 긴급돌봄도 기준처럼 계속 제공한다. 방학중 비근무자인 교육공무직은 23일부터 정상 출근해 개학 준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과 학습 공백 최소화 등 분야별 대책을 일선 학교와 산하기관에 전달했다.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해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개학 이후 학교 교육과 연계되도록 학생 관리와 콘텐츠 제공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대, 기후환경센터와 '기후환경 교육' 업무협약

광주교육대학교는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지역의 기후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기후환경 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후·환경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후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공동연구 추진 ▲기후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교류 및 양 기관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안루터·지리산허브밸리·아담원

자연으로 채우다

제 90 회 춘향제
신관사도부입행사

축제공연으로 채우다

허브체험·소리체험

체험으로 채우다

봄, 남원으로

채우다